

8강.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실현함(4:1-10)

I. 오늘의 포인트

1. 성문앞에서 법정 일을 하는 고대 사회의 풍습에 대하여 알아본다.
2. 보아스가 롯과의 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 본다.
3. 보아스가 선언하는 결혼의 목적을 깊이 알아본다.

II. 본 론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

- 1) 모압에서 돌아오는 나오미와 롯
- 2) 이삭줍기밭에서 롯과 보아스의 만남
- 3) 타작마당에서의 롯의 청혼

A. 보아스가 법적 회의를 소집함

- 1)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다 라는 말의 의미
: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이 법정이나 상업적, 공적인 업무 수행의 중요한 장소였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룻4:1)
- 2)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성문 앞에서 법적인 일들을 진행하는 여러 사례들
: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살 때 공증의 장소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헛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리라'(창23:18)
: 패역한 자녀를 징벌할 때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신21:19)
: 국가의 중요대사를 진행할 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역대하 18:9)
: 그 성의 유지나 장로의 역할을 하는 모습
'그 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욥29:7)

B. 첫 번째 기업 무를 자 vs 두 번째 순서자인 보아스

- 1) 첫 번째 기업 무를 자가 마침 성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적 손길이 이야기 전반에서 암시되고 있음

: 섭리의 손길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닌 일상의 삶속에서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음.

룻기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애굽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사건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룻4:1)

2)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 앉힘과 동시에 법적 효과를 확실히 하도록 증인자를 부름
: 성읍 원로 열 사람을 청함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며’(룻4:1-2)

3) 성경을 기록한 자의 평가!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암시하고 있는 내용

: 그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음(유명해 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잃어버린 모습)

: 이 사람은 친족의 기업을 세우기를 거절함으로써 이름이 없어지는 삶이었다.

즉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중요한 기회가 먼저 주어졌지만 자신의 이기심으로 차 버렸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룻4:1, 3)

4) 유리한 조건을 먼저 이야기 함

: 보아스가 기업 무를 1순위 자에게 받을 살 것을 먼저 제안함과 이에 대한 반응

: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사 주라는 제안과 사겠다는 반응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만일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만일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룻4:3-4)

5) 불리한 조건을 뒤에 이야기 함

: 보아스가 첫 번째 대답을 예상하고 준비한 듯이 추가적인 의무로 룻과 결혼할 것을 제안함.

: 밭을 사는 것과 동시에 룻과 결혼을 해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함을 압박함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룻4:5)

: 결혼은 해 주지 못하겠다고 함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는 본심이 드러남.
 결혼을 함으로 그 말이 자기 말이 되지 못함을 알고 조금 전에 받을 사 주겠다는 그
 본심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됨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룻4:6)

6) 보아스의 결혼에 대하여 시비의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정리됨
 : 제 1 우선순위자의 입으로 자신은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하라고 선언함.
 ‘.....내가 무를 것을 내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룻4:6)

C. 보아스와 룯의 혼인으로 실현되는 멋진 하나님의 법

1)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 시대배경
 : 기업 무르는 일은 친족의 집안을 세워주기 위한 선행이었고 이를 위하여 다른
 씨족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우선순위를 주었다. 그런데 이런 위치가 오히려 자신의 땅을
 늘리려는 시도들이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레25:25)

2) 하나님의 법의 원래의 정신대로 실행하려는 보아스
 : 손해를 감수하는 보아스,(이미 결혼한 보아스,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룻4:9-10)

3) 보아스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법의 실행
 : 장로들앞에 대중적으로 증언하게 함으로 이 일의 **법적 실행**되는 케이스가 되게 함
 : 하나님의 법의 원래의 정신을 살려야지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더욱 심화 확장되는 특별한 헤세드의 방향성
 1단계: 기업 무르는 제도와 수혼 풍습이 결합됨!
 2단계: 직계 형제가 아닌 친족인 보아스의 케이스
 : 한 개인사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스라엘 사회에 **확장실행** 되어야 할

케이스가 되게 하는 사건으로 범정인 공증을 받게 함

: 사사시대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와는 힘이시다” 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모습

: 보아스가 이렇게 일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뜻기는 달콤한 사랑이야기가 아니라,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한 가족을 위해 베풀어진 특별한 헤세드의 이타적이고 자비의 사랑이야기로 드러났다.

: 하나님의 법이 유명 무실한 시대(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법의 원래의 정신이 풍성하게 실현되도록 한 보아스를 본다.

III. 적 용

1.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정신을 왜곡하고 오히려 그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시도들에 대하여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2.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살려 그 자비의 법이 실행되도록 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말자!
3. 오늘날의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과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연약한 교회들에 대한 배려하려는 마음, 희생이 없이 이득만 얻으려는 이기적인 동기로 교회 쇼핑을 하는 모습들로써 하나님나라의 자비의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